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촛대 그리고 황톳길' 전  
31일까지 황톳길 사동



# “어김없이 촛불은 온화한 빛으로 내 주위를 감쌌다”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촛대를 수집해왔다. 시작은 1980년대 초 베를린대학에 연구교수로 가 있던 때였다. 베를린 베틀리히에서 만난 촛대 하나가 외로움에 지쳐 있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때의 마음은 당시 메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뜻하고 정다운 것들은 모두 내게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고 고독한 밤이면 나는 이 작은 촛대에 노란색 초를 켜고 불을 댕겼다. 어김없이 촛불은 온화한 빛으로 내 주위를 감쌌다.”

1987년 독일 프라이브르크대학에 교환교수로 가며 본격적으로 주머니에 배낭을 메고 촛대 사냥에 나섰다. 성당, 대학, 박물관, 가정집 등 ‘역사를 초월한 인간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베틀리히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이후 해외여행을 갈 때면 꼭 베틀리히에 들러 촛대를 구입했고, 촛대를 수집한다는 입소문 덕에 지인들도 그에게 촛대를 선물하곤 한다. 세 들어 살던 독일인 집주인도 그에게 촛대를 선물해줬다.

독일, 스위스, 남미, 인도 등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모은 촛대는 500여종에 달하고 촛대를 수집하다 보니 촛대와 어울리는 ‘공간’을 꾸미고 싶어 수집한 책주, 꽃병 등도 꽤 많다.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광주와 인천, 대구 등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촛대 100여종이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 ‘촛대 그리고 황톳길’은 사작공원 관덕정 앞에 문을 연 황톳길 사동(광주시 남구 중앙로

110번길 29-4)에서 진행중이다. 사진작가 최옥수씨가 운영하는 황톳길은 동명동 골목길, 정원 딸린 가정집에 문을 연 이후 개성있는 먹거리와 전통차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공간이다. 몇년 전 중앙도서관 앞에 지점을 냈고 사동점은 지난해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동에서도 기존 황톳길에서의 똑같은 음료와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황톳길 사동은 낡은 가정집을 개조해 문을 열었다. 입구는 아주 좁은듯하지만 지하까지 갖추고 있는 공간은 의외로 넓다. 촛대가 생활 속에서 직접 ‘쓰일 때’ 그 빛을 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시는 맞춤형 인테리어처럼 공간에 절묘하게 어울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 촛대 전시회 당시 작품 사진을 찍었던 최옥수 작가와의 인연도 한몫했다.

촛대는 단순히 초를 켜고 불을 밝히는

30여개 나라에서 모은 100여종 전시 재료·형상·장식·색감 모두 예술작품 낡은 집 개조 ‘황톳길’과 절묘한 조화

실용적인 용도 뿐 아니라 재료, 형상, 장식, 색감까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작품이다. 전시작들 역시 청동, 돌, 유리, 철, 자기, 나무, 등 다양한 소재와 문양이 어우러져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촛대들은 공간을 활용해 전시중이다. 푸른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창가에 나란히 놓인 10여개의 촛대는 다채로운 조형미를 자랑한다. 각각의 탁자에 놓인 촛대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화려한 리스 옆에 놓인 촛대는 소박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수호신처럼 놓여 있는 돌 촛대도 인상적이다.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촛대의 매력에 빠져보기 좋은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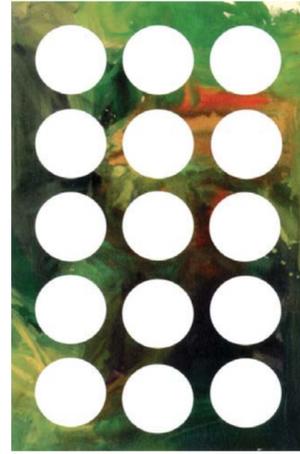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성진기 교수 소장 촛대전이 열리고 있는 황톳길 사동.

# 신비의 실체

김이오 초대전, 19일까지 나인갤러리



'The truth of mystery'

김이오(KIM25) 작가는 지난 한해 분주히 움직였다. 3년 전속계약 맺은 서울 금산갤러리 초대전을 비롯해 키아프(KIAF) 등 아트페어에도 참여했다. 특히 12월 아트미에미에 추상작품 ‘신비의 실체’ 시리즈로 참가했던 김작가는 현장에서 뉴욕 첼시 미즈마 김스&우다아트 갤러리 칸 대표의 초청을 받아 8월 뉴욕 초대전을 열 계획이었다. 또 오는 2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호텔아트페어에서는 특별전 형식으로 백은실 작가와 2인전을 진행한다.

오랫동안 써왔던 ‘김유미’ 대신 지난해 ‘김이오’로 이름을 바꾼 그녀가 광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신비의 실체(The Truth of Mystery)’를 주제로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지역에서는 드물게 줄곧 추상작업을 진행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일구는 김작가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고 추상회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동시대성을 담보하는 작품을 탄생시키려 애썼다. 김작가는 이번 전시작들이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 새로운 신비로움을 경험한 순간의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100호 크기의 도톰한 캔버스 원단에 다채로운 색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이를 동그라미 형태로 잘라낸다. 색이 사라진 동그라미는 그 자체로 또다른 조형미를 보여주며, 잘려나간 동그라미 그림들은 하얀 천 위에 다시 배열해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낸다. 두 작품은 ‘이러한 상동’처럼 ‘하나의 세트’로 보여진다. 영상 작품의 ‘시퀀스’처럼 화면을 잘라내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장면들은 다양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

또 프레임만 남기고 가운데를 텅 비워둔 작품도 눈에 띈다. 그 ‘비워둠’으로 인해 훨씬 다양한 해석과 여백을 체험하게 한다. 재료 활용도 인상적이다. 수성 아크릴과 일종의 풀인 바인더를 섞어 써 투명한 느낌을 주기도하며 오묘한 색채의 변화가 이루어져 독특한 느낌을 준다. 빨강·파랑·노랑·초록·분홍 등 신비로운 발색과 우연성이 빛어낸 작품들로 질감을 살리는 대신 다채로운 색으로 얹게 발라낸 화면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늘 변화를 꿈꾸는 김작가는 차기작으로 기존 추상에 보자기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을 구상중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나온 김작가는 199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16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멕시코 시티, 토론토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남자들의 요리수다” 재밌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4개 분야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 등 4분야 겨울특별강좌 수강생을 22일까지 모집한다. ‘남자들의 요리수다’는 중장년층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반찬부터 일품요리 등 다양한 조리법을 배우보는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상’에서는 공중떡볶이, 딸기샐러드, 꼬투리감밥 등 맛있는 간식뿐 아니라 친구 초대 상차림이 가능한 일품요리 등 8가지 음식을 만든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상’

가야금병창 교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화동동’은 강강술래 중 ‘남생이 놀아라, 개굴이 개굴청, 손치기’와 ‘아리랑’ 등을 가야금과 함께 배워본다. ‘악기를 만들어 보세요’는 가족이 함께 미니 장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각각의 강좌기간은 ‘남자들의 요리수다’가 오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총8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상’이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총5회)에 열린다. 민경숙(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

의례음식)이 두 강좌의 강사를 맡는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화동동’은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총5회) 문명자(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강사가 진행한다. ‘악기를 만들어 보세요’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총5회) 이복수(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가 진행한다. 한편 수강신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및 전화·방문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아시아문화전당 무대 뒤가 궁금하다면”

ACC, ‘백스테이지 투어’ 3월 27일까지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 뒤를 만나는 특별한 여행. 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극장의 공연 전 무대 뒤는 어떤 모습일까? 창제작센터 공간의 풍경은 어떤까?

ACC는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변식 블랙박스 공연장 극장 내부를 공개하고 창제작센터 뒤편 얘기를 들려주는 ‘ACC 백스테이지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까지(매주 수·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고 수요일에는 무대기술팀과 창제작센터 관계자가 해설을 맡으며, 금요일에는 ACC 투어 해설사에게 설명을 듣는다. 이번 ‘ACC 백스테이지 투어’에서는 평소 공연이나 전시 관계자만 이용하는 예술극장의 블랙박스형 극장1(1056석)과 프로시니엄 무대 극장2(612석) 내부를 비롯해 공연 연습이 이뤄지는 아틀리에를 볼 수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 장비로 응축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창제작센터(스



아시아예술극장 극장2 관객석 전경.

튜디오·2·3, 기계·조형, 복합, 디지털 AV) 등 ACC의 숨겨진 공간을 만난다.

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이며 매회 15명으로 제한한다. 개인·단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투어 신청은 AC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당일 취소분이나 미예약분에 한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동아시아 속에서 생각하는 한일관계’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소 13일 ‘국제 학술심포지엄’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소장 정승운)는 오는 13일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본 도호쿠대학 국제문화연구소와 공동개최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속에서 생각하는 한일관계’라는 주제 아래, 박규태 교수(한양대)가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기초강연을, 마나베 유코 교수(도쿄대학)가 ‘한일관계와 타자이해-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실마리’를 각각 발표한다. 또 김정례 교수(전남대) 등 국내외 석학들의 다양한 연구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사노마사토 교수(일본도호쿠대학), 오세종 교수(일본 류큐대학), 하시모토 교코 교수(일본 스타주쿠대학) 등 동아시아의 여러 시점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정승운 소장은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역사적 인과관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지금의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